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37.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

2013. 09. 15.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흰 옷 입은 무리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허락한 대우에 대하여 다음 구절들을 살펴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7:13~17]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7중 찬양에 대한 것과 흰 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성령도 주님이라는 기록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음 내용을 설명할 차례인데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합니까?

답: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앞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된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장로는 요한에 묻기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했을 때 대답은 질문한 순서와 역으로 대답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먼저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큰 환난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큰 환난이라는 말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대로 예수께서 말씀한 역사적으로 그 환난 전에도 그런 환난이 없고 그 후에도 그런 환난이 없는 큰 환난, 곧 한 때 두 때 반 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큰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옷을 씻은 이유 하나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이유로 구원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큰 환난을 겪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전혀 기여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들이 겪은 환난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지, 자격을 얻는 조건으로 당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선하다 해도 전혀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로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오히려 큰 방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3. 유대인들의 실패가 자기들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생각한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지요. 그들은 선한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아주 깊은 슬픔으로 말합니다.

[롬10:1~4]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속죄의 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의롭다고 판결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는 말은 이런 사실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4.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인데 성경말씀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고전1:30,31을 봅시다.

[고전1:30,31]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행하는 의로운 일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5. 목사님, 사람이 의롭게 살고 선행을 하는 것을 성경도 원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5:16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답: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셨지요. 착한 행실을 하면 빛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모습이 착한행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착한행실을 하면 빛이 된다고 하지 않은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실이 빛이 되게 해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바울도 그런 사상으로 살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상이 해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전4:4에서 자기 스스로는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고백합니다. 또 빌3:6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알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을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경험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의롭게 된 사람이 사는 모습이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롬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모든 절차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삶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 중에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지고한 선행도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자가 선행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요.

6. 목사님, 이야기가 분명해졌습니다. 왜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답: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계22:14을 봅시다.

[계22:14]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두루마기를 빼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19:8입니다.

[계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한 옳은 행실을 도덕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 바르게 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찾아본 계22:14과 지금 살피고 있는 계7:14에 의하여 이것을 어린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행위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지요. 계19장을 공부할 때 또 말하게 되겠지만 한 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도 제가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속3:3~5]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의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섭니다. 여기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지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살피도록 하지요.

답: 다음 말씀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인데 성소의 첫 칸과 둘째 칸을 포함한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특별히 지성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밤낮 섬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지요. 제가 1:5,6과 5:10을 말할 때 이야기한 것인데, 출19:4,5에 약속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밤낮 성전에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하신 약속과도 같지요.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어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4000이 빌라델비아 교회시대의 사건으로 본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한 표현은 계시록에 두 번 나오는데, 여기와 22:3입니다. 여기 그들은 바로 3절에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22:3에도 그의 종들이 나오는데 같은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2:3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7장은 144000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144000인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보는 학자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볼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144000인으로 상징된 큰 환난에서 나온 흰 옷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여기 장막이라는 말은 헬라어 “스케노”인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출25:8의 성취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요1:14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거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임마누엘로 성취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장막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계21:3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서”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22:1~5에 나타난 내용과도 같습니다. 또 레26:11,12성취이기도 합니다.

[레26:11,12]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8.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너무나 감격스러운 광경이군요. 이 장면은 계21장과 22장을 요약한 것 같은 인상입니다.

답: 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는 144000인과 관련된 장면이고, 21,22장은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장면이지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같으니까 결국은 모두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요. 이제 16,17을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계7:16,17]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감사합니다. 7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주리고 목마르고 뜨거운 사막에서 상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이사야 49:10의 반영입니다.

[사49:10]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회복될 때에 누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계7장에서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 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의에 주리고 목말랐는데, 이제는 배부르게 된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마5:6) 또 요6:35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4: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속 받은 자들은 영육 간에 주림과 목마름이 더 이상 없는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실히 보증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9. 주리고 목마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약속이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답: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즘 한국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6.25 전쟁 때의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단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왜 그랬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잡숫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리고 목마른 것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때가 이르면 양식이 없어 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아모스 8:11~13에 예언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서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양식과 물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찾지 않으면 배부른 경험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책은 어디서든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시대이고, 교회당은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많고 설교자들도 넘치는데, 순수한 진리 썩물이 된지 않은 생수와 생명의 복음의 영양이 듬뿍 든 말씀을 듣기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7:15의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아무 뜨거운 기운”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 카우마”는 “불에 타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오”에서 파생된 단어로 고통스러운 열기를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므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지나면서 당한 경험을 상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넷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게 되는데 그 정반대 현상을 보여줍니다. “상하지 아니할지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데 메 페세”는 “떨어지다”는 의미인 “피프토”의 부정관사 시제로 강한 이중 부정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상에서와 같은 고통스러움이 결단코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성도들이 전형적인 육체의 모든 고통에서 장차 해방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실 때 하신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13:40~43]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는 악인들이 불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끝에 있을 사건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지요.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때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권세를 받은 태양의 열기에 타는 것과 대조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열기에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말씀이지요.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고 했으니 어떤 해가 뜨거워진 것뿐만 아니라 어떤 뜨거운 열기의 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0. 목사님, 17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복된 경험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 같은데, 맞지요?

답: 예, 목사님, 맞습니다. 곧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양이 드디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가운데”라는 말은 “아나 메손”인데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22:1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고 여러 곳에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에스겔 37:24의 성취이고 시편 23편의 성취입니다.

[겔37: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하니까 읽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시편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목자가 되시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생을 인도하신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선한 인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분은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수 샘으로”는 헬라어 “에피 조에스 페가스 휘다톤”은 어순상 “생명의”(조에스)를 강조하는 어순입니다. 이는 다함이 없는 생명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그에게 있다는(시36:9) 말씀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 25:8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사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의 해당하는 헬라어 “여살레이프 세이”는 문자적으로 ‘...으로 부터 제거해 버리다’라는 의미의 미래 시제인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구속 받은 자들을 고통과 아픔으로 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장차 구속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하며 절대적인 희락과 평강의 축복을 보여주는 확실한 장면입니다. 사실 눈물을 씻기는 것은 이런 뜻 이상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21:4을 설명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11. 목사님, 참 가슴 설레는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애청자들과 우리가 꼭 그곳에 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쳐야 하겠네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면이 동영상처럼 눈에 선합니다. 어린양 예수의 피에 날마다 옷을 씻어 희게 하고 그곳에 꼭 가도록 이끌어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